“종교개혁 없이 사회개혁 불가능”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종교인 등 2000명 종교개혁 선포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각기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 우리사회의 종교개혁을 외쳤다. 원효 탄신 1400주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2000여 종교인들은 “길을 제시할 종교가 스스로 길을 잃고 말았다. 종교개혁 없이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 높였다.〈사진〉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종교개혁선언 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박광서 · 이정배 · 김유철)는 구랍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종교개혁 선언문 선포 및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종교개혁을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성직자와 수행자들의 타락은 이미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 대다수 절과 예배당은 성스러움과 무한, 빛과 소금을 상실한 채 영화 한 편보다 더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일개 상담소보다 더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진리와 의미는 사라지고 종교 공동체마저 해체돼 각자 제 살 궁리만 도모하면서 모두가 외로움과 소외에 몸부림치면서도 서로 이를 심화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각 종교별로 종교개혁 운동을 선포했다. 불교는 △범계승에 대한 공양 금지 △수행 · 포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동참 △사부대중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소욕지족의 삶 등을 목표로 세웠다.



개신교는 △성직자 부당함 밝히고 교회 공공성 회복 △평신도 함께하는 민주적 교회 공동체 실천 △작은 교회 형성 및 연대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천주교는 △이윤추구 사업 물러나 가난한 교회로 △여성 평신도 권리 확대 △순교성지 성역화 사업에 이웃종교 배려 △4대강 재자연화, 탈핵 등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종교개혁 선포에는 불교 단체 20곳 · 개인 559명, 개신교 단체 21곳 · 개인 640명, 천주교 단체 13곳 · 개인 574명, 무종교 및 이웃종교 단체 1곳 · 개인 402명이 서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지팥죽 민족문화 함께 지켜요” 극심한 한파가 한반도를 스치며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온기를 나누는 마음만큼은 얼리지 못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구랍 22일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서 ‘동지 팥죽 나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관광객 4000여 명에게 무료로 팥죽을 제공했다. 특히 종단협 회원종단 소속사찰 전국 100여 곳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려 총 30만 명을 대상으로 팥죽 나눔이 펼쳐졌다. 사진은 종단협 회장 설정 스님이 시민들에게 직접 팥죽을 담아 전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文,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 즉각 폐기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외교부TF 결과에 성명 발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외교부 ‘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구랍 27일 “(2015년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 · 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 · 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밝힌 직후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위안부TF팀은 한일 합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을 외교부가 삭제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이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뒤 일본군 성노예제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성명을 통해 “위안부TF 발표는 일본군 성노예제 협상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민족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수치심마저 느끼게 만드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국민들에게 모욕을 준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를 즉각 폐기 선언해야 한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할머니들뿐 아닌 민족의 문제요, 역사의 문제이기에 먼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어리석음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사회노동위는 함께 기도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불교 ‘최다’

63개 종교단체 중 불교 55개… 대부분 유사불교단체로 확인

올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종교계 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구랍 21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65곳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개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종교단체가 63개(97%)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이 중 8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중복),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가 적발됐다. 다만 국세청은 단체명에 특정 종단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찰은 55곳이나 적발돼 종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속 종단이 없거나 유사불교단체로서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찰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 소속 사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로 보이는 5곳(태고종3 · 법화종1 · 용화종1)이 있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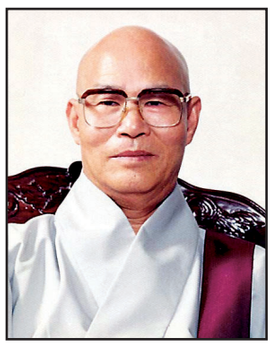
“이사무애 선지식이여, 열반락 누리소서”

영허당 녹원 대종사 원적
세수 90세, 법랍 77세로

영결식, 조계종단장 엄수
사부대중 5천여 명 참석

직지사=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허당 녹원대종사의 법구가 직지사 연화대로 이운되고 있다.



영허당 녹원 대종사 행장

1928	경남 합천군서 출생
1941	사미계 수지(탄옹 스님)
1946	구족계 수지(한암 스님)
1958	직지사 주지
1981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1984	조계종 총무원장
1985	동국학원 이사장
1997	원로회의 의원
2007	직지사 조실

1980년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영허당 녹원대종사의 법구가 사바세계를 떠났다. 황악산 터줏대감의 빈자리는 적막만이 가득 메웠다.

구랍 23일 원적에 든 녹원 스님의 영결식이 27일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에서 조계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녹원 스님은 세수 90세, 법랍 7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갑작스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종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각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녹원 스님의 원적을 추도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녹원대종사 각령전에’라는 법어를 통해 “녹원대종사께서 남기신 90년의 성상은 이사에 구분이 없고, 세간과 출세간에 걸림이 없던 이 시대의 선지식이었다”며 “일찍이 동진출가하시어 선과 교와 종무를 두루 섭렵하고, 오직 종단 발전과 후학불사, 가람불사를 평생 원력으로 삼으시고 일로매진했다”고 녹원 스님을 기렸다.

이어 “부처님 정법으로 종단을 이끄시고, 지혜와 덕망으로 원융화합을 이뤄 조계종을 반석 위에 우뚝 세움에 모든 종도들의 귀감이 되니 실로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큰스님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기다리겠다. 속환사바 하셔서 이 땅의 불일(佛日)을 다시 한 번 빛나게 하소서”라고 추도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영결사에서 “녹원 스님께서는 평생을 교육불사와 가람불사에 매진하셨다. 중생을 위한 일에는 차별이 없고, 불사를 통해 지혜의 종자를 심었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불사라고 하셨다”며 “90평생, 70여 성상을 지혜의 종자심는 일에 매진하셨으니 이제 보리의 열매가 곳곳마다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조사를 통해 “지혜를 얻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복을 짓는 선행을 즐거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스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은 출가자에게나 재가자에게나 모두 펼쳐져 있었다”면서 “이제 부처님의 회상에서 최상의 적멸락을 누리시옵소서”라고 말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영결법요(어산어장 인묵 스님) △행장소개(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추도입정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조가 △헌향 △인사말(문도대표 혜창 스님) △발인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 이후 녹원 스님의 법구는 직지사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서 불법승 구호에 이어 거화의식이 거행됐다. 참석 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녹원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올렸다. 녹원 스님 49재는 구랍 29일 초재를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직지사서 봉행된다.

2018년에도 크게 발전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 스타트업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열린 시스템을 통해
학생창업의 못자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 7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선정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선정
/ 학생 스타트업 매출 9억 원 돌파(2016년 기준)
/ 파격적 학사제도인 창업휴학제 도입
/ 창업 정규강좌 운영
/ 우수 기업 최대 1억 원 지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8. 1. 7[일] ~ 1.9[화]



언리얼파크 진사욱(멀티미디어10) 김경현(멀티미디어11) 이상곤(멀티미디어12)
– 증강현실기반 액션 모바일 게임 ‘코드몽’ 개발 – 2017년 대학생 스타트업 CEO50인 선정